2022. 10. 17 535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관용차량 및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 추진

문화·관광 '스마트화'로 2025년 '국제 컨벤션 도시'로 도약 노려

사회·복지 자연재해가 빈번한 계절에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 금지

도시계획·주택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옛 주택가 개조사업' 시행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로스앤젤레스	김민희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관용차량 및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 추진

인도네시아 / 환경·안전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국내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관용차량과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이용과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대통령 훈령을 공포하고, 각 정부기관과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법령과 정책의 수립·시행을 촉구

배경 및 목적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련의 법령과 정책 수립을 통해 2차전지 기반 전기차의 도입을 앞당기고자 노력**

- 「도로교통을 위한 2차전지 전기차 프로그램 가속에 관한 대통령령」, 「2차전지 기반 전기차의 사양(仕様), 개발 로드맵, 국내생산 기여도 계산에 관한 산업부장관령」, 「완전분해 및 불완전분해 전기차 수입 조립에 관한 산업부장관령」 등으로 전기차 도입뿐만 아니라 생산·수출 기반 역시 강화하고자 함
-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60만 대 생산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 750만 배럴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270만 톤 감소 효과를 기대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중앙정부·지방정부 관용차량 및 공무원 개인차량의 2차전지 기반 전기차 이용에 관한 대통령 훈령[1](2022년 7호)」을 공포**

-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용차량과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이용을 앞당기고자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장에게 이를 위한 법령과 정책의 수립·시행을 촉구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용차량 및 공무원 개인차량의 2차전지 기반 전기차 이용에 관한 대통령 훈령(2022년 7호)」에 따라 중앙정부의 주요 부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나누어서 맡음**

- 내무부는 관련 법규를 통일하고, 지방정부의 장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
- 재무부는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비용 표준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전기차 구매

1) 인도네시아 법규 시스템에서 대통령 훈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정부부처 등 정부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해당 사안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으로 기능함

조달을 위한 각 기관의 예산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

-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국가연구혁신청은 전기차 연구 생태계를 개발 및 강화
- 산업부는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생산과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제공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기차 충전소 및 2차전지 교환소 관련 인프라 개발을 장려하고, 운영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
- 국가개발기획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부로 전기차 이용과 통합 생태계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존 화석연료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지급체계를 강구
- 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용차량, 셔틀버스와 대중교통수단의 전기차 전환에 관한 로드맵을 취합하여 각 정부기관 간 조율을 담당

○ **중앙정부는 국영전력공사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2022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총 690개소를 조성·운영할 계획**

- 현재 건설 중인 신행정수도에는 운전 중 충전 레인 도입 등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여 '차량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

○ **주지사, 시장, 군수 등 각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 행정령의 제정·시행과 예산 편성, 지방공사의 참여 유도를 맡고, 필요시 회계적·비회계적 인센티브를 제공**

○ **자카르타와 발리는 관용차량과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전환 추진 1단계 시범 지역**

- 자카르타州는 2023년에 관용차량으로 전기차 100대를 도입하고 충전소 2개소를 조성하며, 현재 30대를 운영 중인 트랜스자카르타 전기버스를 100대로 늘릴 계획
- 발리州는 오는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 맞추어 전기차 이용을 공식화하고, 회담 참석자들이 이용할 전기차를 위한 초고속 충전소(충전기 총 70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
  - 발리州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미 2019년에 「청정에너지 이용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과 「2차전지 기반 전기차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을 제정·시행

향후 과제

○ **기존 일반 관용차량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기준을 전기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관용차량 엔진 배기량(예를 들어, 장관의 경우 3,000cc) 기준을 전기차에도 유사하게 적용
- 아직 방탄 전기차가 없어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대상 관용차량은 당분간 기존 화석연료 차량을 유지할 예정

https://setkab.go.id/presiden-terbitkan-inpres-penggunaan-kendaraan-dinas-listrik/

https://kemenperin.go.id/artikel/22889/Bangun-Ekosistem-Kendaraan-Listrik,-Kemenperin-Terapkan-Peta-Jalan-Pengembangan-KBLBB

https://money.kompas.com/read/2022/09/17/051500726/pemerintah-bakal-ganti-189.803-kendaraan-dinas-jadi-mobil-listrik-

https://money.kompas.com/read/2022/07/15/134000526/mobil-dinas-presiden-pakai-mobil-listrik-moeldoko-belum-ada-yang-antipeluru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2/09/18/14114381/pemprov-dki-jakarta-akan-beli-100-unit-kendaraan-listrik-untuk-keperluan

https://otomotif.kompas.com/read/2022/09/18/161200415/kendaraan-listrik-untuk-pemerintahan-dilakukan-bertahap?source=widgetML&engine=C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스마트화’로 2025년 ‘국제 컨벤션 도시’로 도약 노력

중국 청두市 / 문화·관광

쓰촨省 청두市는 2025년에 중국 최고의 ‘국제 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최근 발표. 2025년에는 청두市가 1,450만㎡ 규모의 면적에 1,200회의 컨벤션(convention), 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1,600억 위안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 청두市는 이를 위해 첨단 IT를 적극 활용하고 네트워크 툴이 일상화되는 ‘스마트화’로 다른 경쟁 도시와 차별화하여 ‘국제 컨벤션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

2025년 ‘국제 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

○ 쓰촨(四川)성의 성도(省都)인 청두(成都)시는 2025년 중국 최고의 ‘국제 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최근에 제시

- 8월 24일 청두市 정부 컨벤션국(博覽局)이 수립한 ‘청두市 제14차 5개년 규획[1] 국제컨벤션도시 건설규획(成都市‘十四五’成都市“十四五”國際會展之都建設規劃)’이 청두市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 발표됨
  - ‘청두市 제14차 5개년 규획 국제컨벤션도시 건설규획’은 모두 4장, 4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두市가 2025년에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통계 수치를 제시

○ ‘청두市 제14차 5개년 규획 국제컨벤션도시 건설규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청두市가 전체 1,450만㎡ 규모 면적에 1,200회의 컨벤션, 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1,600억 위안(약 31조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

- 1,200회의 컨벤션, 행사, 이벤트 등 중에서 230회는 국제적인 규모이고, 국제컨벤션협회(UFI)의 인증을 받는 것은 20회가 넘을 전망
  - 1,200회의 컨벤션, 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기 위해 청두市의 컨벤션 관련 기업은 800개에 달하고, 연 매출 1억 위안이 넘는 기업은 30개가 넘을 전망
  - 컨벤션, 행사, 이벤트 등을 주관할 인력으로 기업 CEO는 350명, 국제적인 수준의 현장 전문가는 500명 이상 배출되고, 전체 면적 90만㎡ 이상의 컨벤션 전시장 및 회의장과 호텔 객실 15만 개가 마련될 예정

1) ‘제14차 5개년 규획’의 정식 명칭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 강요(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성장규획과 2035년까지 달성할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계획임

○ **'청두市 제14차 5개년 규획 국제컨벤션도시 건설규획'에서는 이를 위해 청두市가 다른 경쟁 도시와 차별성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경쟁력으로 '스마트화'를 꼽음**

- 홀로그램, 메타버스 등 첨단 IT를 적극 활용하여 컨벤션 산업의 스마트화를 크게 향상시켜 청두市만의 강점을 부각할 계획
  - 이를 위해 ▶전시장과 회의장, 호텔, 쇼핑몰, 박물관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시설 융합, ▶수요자와 현장과의 인터넷 연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컨벤션, 행사, 이벤트 등에서의 신속 서비스 기능, ▶기획, 조직, 설치, 컨설팅이 통합된 대형 서비스기업 등장 등을 구현하여 청두市의 컨벤션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꾸준히 발전시킬 계획
  -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전시장과 회의장이 결합되는 차세대 컨벤션센터의 추세와 컨벤션 산업이 다른 업종과 융합되어 발전하는 흐름에 맞추어 성장시킬 예정
- Wechat(微信, 위챗) 화상통화, Zoom 영상회의, 텐센트(騰訊) 영상회의 등 네트워크 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라이브(Live), 인공지능(AI) 동시 통역 등 새로운 IT도 적용하여 청두市의 컨벤션 산업 전반을 스마트화, 디지털화하여 업그레이드함
  - 이러한 스마트화, 디지털화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컨벤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함임

중국 전체와 청두市의 컨벤션 산업의 발전 현황

○ **2021년 중국 컨벤션업종이 경제 전반에 끼친 효과는 7,900억 위안에 달했고, 그 뒤 연평균 7.8% 성장하여 2025년에는 1조 685억 위안에 달할 전망**

- 오늘날 컨벤션 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 전시와 회의부터 관광과 이벤트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MICE 산업으로, 산업 체인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고 주변 업종에 끼치는 영향력이 큼
  - 중국에서는 컨벤션의 유형이 서밋, 포럼, 브랜드 행사, 스포츠 이벤트, 기업 회의, 교육 행사 등으로 다양화되었는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개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임
- 2022년 5월까지 청두市 컨벤션 산업은 295회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컨벤션, 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173억 위안의 매출을 거둠
  - 올해 상반기 청두市에서 개최됐던 대표적인 컨벤션 행사인 '2022년 전국술·설탕 상품교역회'는 전국 각지에서 30만 명이 찾았고, 청두市 전체 호텔 객실의 80% 이상이 예약됐으며, 서비스업종에 30억 6,000만 위안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음

[사진] 청두市의 대표적인 컨벤션 행사인 '전국술·설탕상품교역회' (출처: 전국술·설탕상품교역회 홈페이지)

http://mch.chengdu.gov.cn/News_read_id_6241.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42740440974419239

https://www.sc.gov.cn/10462/10464/10465/10595/2022/8/25/452f7131ffc341c7b82e877089020e7c.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41644883194986835

https://xw.qq.com/cmsid/20211103A0DNC500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자연재해가 빈번한 계절에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 금지

이탈리아 토스카나州 / 사회·복지

이탈리아 토스카나州는 무더위,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때에 생길 수 있는 반려견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

배경 및 목적

○ **반려견을 목줄로 묶어 놓는 행위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큰 이슈가 됨**

- 무더위, 산불, 홍수,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여름철에 목줄로 묶인 반려견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 묶여 있어 장시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려견들은 우울증과 불안,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됨
-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현재 각 州별로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의 허용 정도가 다름
  - 이미 4개의 州(캄파니아, 마르케, 라치오, 움브리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토스카나州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8~9월 동안은 엄격한 금지 기간으로 지정**

주요 내용

○ **토스카나州는 '이탈리아 동물복지법 단체(Animal Law Italia)' 및 '동물복지단체(Green Impact)'와 연합하여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

- 예외 조건 없이 토스카나州의 모든 반려견은 보호자의 보호 아래 이동이 자유로움
  - 빠르게 퍼져 나가는 산불의 특성상 보호자가 반려견을 대피시키지 못해 화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를 계기로 더 큰 비극을 막고자 함임
- 토스카나州는 벌금형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을 시작한 첫 번째 州임
- 2026년까지 이탈리아 전역에서 '묶여 있는 목줄'에서 반려견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
  - '묶여 있는 목줄에서 자유롭게 #liberidallecatene'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에 공유
  - 이탈리아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

○ **여름철 이후에는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를 조건부로 허용**

- 의무사항
  - 하루에 두 번 야외 산책을 의무화
  - 반려견이 묶인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집에 드나들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함
  -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도록 목줄이 최소 4~5미터 이상이어야 함
  - 반려견이 갇혀 있다면 공간이 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을 유지해야 함

○ **처벌 조항**

- 관련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토스카나州가 직접 부과하거나, 각 도시에서 부과할 수 있음

[그림] 이탈리아의 州별로 본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 허용도' (출처: https://www.freedomfordogs.org/)

https://www.today.it/speciale/animali-domestici/cani-legati-alla-catena-divieto-legge.html

https://www.today.it/speciale/animali-domestici/cani-legati-alla-catena-petizione.html

https://www.fanpage.it/attualita/vietato-tenere-i-cani-alla-catena-perche-con-caldo-e-incendi-rischiano-di-morire-la-decisione-in-toscana/

https://www.freedomfordogs.org/?appunica=true

김 예 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옛 주택가 개조사업' 시행

중국 충칭市 / 도시계획·주택

충칭市 정부는 옛 주택가를 개조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市 전역에서 전면 시행하여 2022년 8월까지 3,921개의 주택가, 97만 가구, 9,060만㎡의 면적을 개조. '옛 주택가 개조사업'은 중국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충칭市의 현실을 감안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년층에게 안정감을 주는 옛 주택가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임

2020년부터 전면 실시해온 '옛 주택가 개조사업'

○ 2018년부터 충칭(重慶)시 정부가 일부 區에서 옛 주택가를 개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다가, 2020년부터는 市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

- 그 결과, 2022년 8월까지 3,921개의 주택가, 97만 가구, 9,060만㎡의 면적이 사업 진행의 혜택을 받아 개조됨
  - 핵심적인 사업 성과로는 ▶옛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3,878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옛 주택가에 5,280개의 양로 및 육아 시설을 새로 개소하거나 확충했으며, ▶옛 주택가에 3만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29만 가구의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등 시설을 보수했음
  - 충칭市 정부 도시계획·주택건설위원회는 아직 개조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2000년 이전에 지어지고 형성된 주택가의 면적이 1억㎡를 넘는 것으로 파악. 따라서 2022년에는 3,089만㎡를 개조하고, 2025년까지 남은 면적을 모두 개조하여 사업을 완성할 계획

이 사업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

○ 충칭市 정부가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임

- 2021년 말 충칭市의 상주인구는 3,212만 명인데, 그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570만 명에 달해 전체 市 인구의 17.8%를 차지
  - 이러한 충칭市의 고령인구 비율은 중국 평균인 14.2%보다 3.6% 높아 중국 내 31개 성(省), 市, 자치구(自治區) 중 1위를 차지
  - 주목할 점은 2019년에는 중국 전체에서 6위였으나 2년 만에 무려 다섯 계단이나 뛰어올라 1위로 올라섰고, 지난 3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평균 0.75%씩

늘어 중국에서 가장 속도가 빨랐음

[사진] '옛 주택가 개조사업'에 따라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 (출처: 충칭일보)

- 충칭市에서 고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배경은 1960년대부터 마오쩌둥(毛澤東)이 추진했던 3선 건설정책[1]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충칭으로 이주해왔던 당시 젊은 세대가 현재는 고령인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임
  - 3선 건설정책은 충칭市를 중국의 핵심 군수공업기지로 발전시켰고, 현재 충칭市는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철강, 컴퓨터, IT 등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고루 갖춘 제조업도시로 성장했음

○ **충칭市 정부가 옛 주택가에 초점을 맞춘 배경은 전체 연령층 중 노년층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지어졌던 옛 주택가에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임**

- 2000년 이전에는 국영기업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를 직접 조성해서 회사 직원이나 노동자에게 무상 분배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했는데, 대부분의 중·노년층이 이때 집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
  - 허촨(合川)구 정부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사한 바로는, 세대주의 70% 가까이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었음

1) 3선 건설정책은 미국과 구(舊) 소련의 선제 핵 공격에 대비하여 마오쩌둥이 주창한 서부지역 건설프로젝트로, 중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연해 지역(1선)과 중부 지역(2선)에 소재했던 핵심 군수기업들을 서부 지역(3선)으로 대부분 옮겼고, 새로운 제조업기지도 건설했음

- 2000년 이전 건축법에는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음

○ **충칭市 정부가 재개발보다 개조를 선택한 이유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고, 옛 주택가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임**

- 현재 중국의 50대 이상 중·노년층은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자녀의 결혼 자금까지 대줘, 경제적 여력이 별로 없는 세대임
  - 2020년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0.53%를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미 인구 정체기에 들어섰음. 따라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나라'가 되어 버렸음
- 충칭市 정부는 현재 사는 주택가 공동체에 익숙한 노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신설과 보수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노년층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옛 주택가가 익숙하고 편하며,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해온 이웃과 서로 의지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

http://cq.news.cn/2022-09/15/c_1129003079.htm

https://m.thepaper.cn/baijiahao_19910683

https://cq.cnr.cn/jiaodiantu/20220915/t20220915_526009966.shtml

http://cq.ifeng.com/c/8J9w5RJqnwm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35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0월 1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